

유아동 감성계발을 위한 미술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점토매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eds of Art Education to Develop Child's Sensibility

-with clay medium-

홍승은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박사과정

Hong Seong-En

Doctor's course in Applied arts, Hanyang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 1-3. 용어의 정의

2. 정신 건강과 감성교육

- 2-1. 유아동 정신건강
- 2-2. 감성지능과 교육
- 2-3. 유아동 감성교육의 필요성

3. 미술교육과 유아동의 감성발달과의 관계

- 3-1. 유아동기의 미술교육과 그 치료적 역할
- 3-2. 감성과 미술교육

4. 점토를 활용한 감성미술교육

- 4-1. 점토의 의미
- 4-2. 점토미술교육이 감성개발에 미치는 영향
- 4-3. 감성개발을 위한 지도원리
- 4-4. 교수-학습 예시안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동력의 근원인 우리의 유아동들은 기술의 발달과 빠른 사회변화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유아동들은 이로 인해 실제 미술치료의 필요성의 범위 안에 있기가까지 하다. 하지만 대다수, 일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굵지 않은 시선과 편견, 비용 등의 이유로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인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취학 아동의 감성 미술교육은 강조,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손으로 주물러 촉감을 느끼며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점토가 새로운 감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가능성을 가진 매체임을 알리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토 매체를 통한 감성미술교육이 유아동 시기에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감성지능과 점토미술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국내외 관련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현재 점토 매체를 통한 유아동 미술교육의 지도 원리를 파악하고 교수 학습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감성지능, 감성교육, 점토미술교육

Abstract

No one would doubt that the individual growth is the most important engine to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odern society. However, our children who are the root for the engine are being distressed by the problems arising from technology advancement and rapid social changes.

The children who undergo severe stress physically or mentally are actually put in the scope to need art therapy. Nevertheless, even if they are mostly the children with a series of problems, they are put out of therapy for the reasons of shunning views and prejudice from the surroundings. From this view, the art education for sensitivity of pre-school children, which is helpful to develop a whole man should be emphasized and extended.

In particular, the writer would like to inform that the clay with which one can feel tactile sensation by fumbling with hands to be able to freely express his own thought and feeling is the medium having effective possibility as a critical tool to develop new emotional ability and sensitiv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highlight how important and why the sensibility art education through clay medium is necessary so as to make use of it in the education field. To this end, it intended to study the education effect of emotional quotient and clay art education through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documents, identify the teaching principles for current child art education by claim medium and suggest teaching plans.

Keyword : emotional quotient, sensitivity education, clay art educ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 뿐 아니라 미취학 아동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대의 유아동들은 획일화 된 입시위주 교육과 핵가족, 부모의 이혼, 형제·자매의 부재, 왕따, 은따(은근한 따돌림) 등의 상황으로 불안정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인지 수준 올리기만 강조하는 조기교육으로 인해 유아동들의 스트레스는 심한 실정이다. 더욱이 TV, 게임기, 컴퓨터 등 날로 다양해져만 가는 영상매체와 현란한 화면으로 인해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폭력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학업 기능 뿐 아니라 점차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정 내의 부모, 자녀·형제 관계에서도 항상 긴장감이 도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노파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는 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과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발달 클리닉(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편견으로 아직도 많은 아동들은 여전히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아이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될 가능성이 커 일찍 증상을 발견해 대처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요인이 실제 학령 전 아동기에 있다는 연관성이 있어 그 예방 또한 중요하다.

최근에는 성공이 경제적,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얼마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가로 그 가치 추구가 바뀌어,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아동들의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해 이를 앞서 언급한 미술교육의 치료적 성격과 감성중심 교육 성격을 잘 연관시켜 실행한다면 그 효과는 클 것이다.

유아의 발달은 어느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미술활동은 신체, 사회성, 정서, 언어, 인지발달 등 다른 모든 발달 뿐 만 아니라 독창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유아동들은 다양한 재료들을 탐색하고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특히, 여러 가지 미술 매체 중에서 점토는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보며 촉감을 느끼고 계속 변형이 가능한 가소성을 지닌 재료로 쉽게 아동들이 접근하여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감성교육과 점토미술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연관시켜 보고, 점토 매체를 통한 감성미술교육이 유아동시기에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지도원리를 살펴보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문헌과 선행 연구를 참고로 유아동기의 정신건강과 감성지능이란 무엇이며, 감성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나. 점토매체를 통한 미술교육의 지도방법과 주요 내용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교사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감성지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지식교육에 비해 가치가 있으나 이러한 교육 활동은 장기적으로 형성되므로 그에 대한 결과 입증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아동 교육은 사교육 현장으로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비해 근거에 따른 체계적인 준거가 약함을 밝힙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와 그 동안 감성이론을 적용하여 정신건강상태가 취약한 아동을 수업한 경험을 토대로 교사-수업 예시안을 세운 것으로써, 본 방안을 가지고 임상적 실험을 통한 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1-3. 용어의 정의

(1) 유아동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명칭은 영아, 유아, 영유아, 어린이, 아동, 소년, 청소년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으면 법률상의 목적에 따라 그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아동'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해 사용되어짐을 밝힌다.

미취학 아동의 구분을 영유아(만 2-3세), 유아(3-4세), 유아동(만 4세-7세)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2) 감성지능

90년대 이후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로 번역되어 주목받게 되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원만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계산력, 기억력, 추리력 등의 지능지수(IQ)와는 달리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거나 그런 능력을 억압하거나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단순히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등(기쁨, 슬픔, 분노, 쾌적감, 불쾌감, 불편함등) 원초적인 감정과는 구분되어 이야기 한다.

(3) 교육현장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경우, 국가지원이 일부 공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엄밀히, 유아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유아에 대해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므로 본 논문에서의 교육 현장은 사교육의 형태이지만 유치원, 사설 학원 교육, 도자 공방 등 개인 혹은 소집단 과외를 미술 교육현장으로 일컬음을 밝힌다.

2. 정신건강과 감성교육

2-1. 유아·아동기의 정신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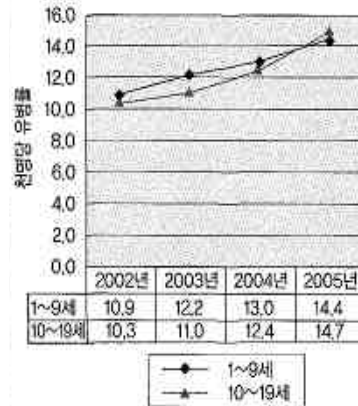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건강이란 신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미국 정신위생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의 보고서에서는 “정신 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적용을 포함하며,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전하고, 균형 잡히고, 통일된 성격 발달을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적응력과 인간관계에 비중을 두어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¹⁾

심리학자 에릭슨(Erikson)은 인간이 각 발달단계에서 획득해야 하는 긍정적인 특성 즉, 신뢰감, 자율성, 숭선 수범, 근면성, 자아정체감, 친밀감, 생산능력을 획득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 특성을 발달시키면 정신건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성인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기는

1) 이승선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2000), .17

하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 건강함이 아니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가를 결정하는데에는 그 아동의 연령에 합당한 발달단계에 준하여 생각과 행동, 감정이 연령의 발달단계에 맞는지, 그 발달 단계에 맞는 발달 과제를 성취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동기의 스트레스는 자극과 강도에 따라 중대한 생활 사건과 일상적인 생활 사건으로 구분된다. 중대한 생활 사건이라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부모님의 이혼, 질병, 성폭행 등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사건을 의미한다. 일상적 생활 사건이란 자매·형제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친구들과의 따돌림(왕따, 은따), 학습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생활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에서 계속 야기 되는 문제들로 유아동들에게 적절한 대처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전체) 추이

[그림 1]은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건강보험 가입 아동 1000명당 정신질환 실인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종류의 정신 질환을 합한 유병률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10세 미만과 10세 이상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준다.²⁾ 이것으로 볼 때 취약한 아동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 얼마나 그 심각성이 큰 지 알 수 있다.

최근 성남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2008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10개교의 재학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검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22.5%, 중학생을 22%, 고등학생은 27.5%가 정밀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번 조사

2)강은정. 『한국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 복지포럼, 제 128집, 2007년 6월), p.65

3) 이번 조사는 학교정신보건상태의 일환으로 성남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2008년 6월부터 선별검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는 미취학,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관련조사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볼 때 많은 초등학교 아동의 정신 건강상태가 안 좋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동기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는 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2. 감성지능과 교육

요즘 들어 감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감성 지능, 감성 교육, 감성 경영, 감성 마케팅, 감성 리더십, 감성 공학, 감성 건축, 감성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을 결합시킨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감성의 정의는 활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 임산부가 초음파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갖고, 태교를 중요시 하는 것도 일련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포괄적인 의미의 감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의미가 사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우리말 큰 사전에는 ‘이성(異性)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감성 공학 분야에서는 ‘감성이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감각·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일어나는 고도의 심리적인 체험으로 쾌적감·불쾌감·불편함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정의 내리고 마케팅, 상품 기획, 광고의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감성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인간·감정·지각·능력·관계’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딱히 이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감성이란 인간의 감정과 감각이 발휘하는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⁴⁾

대니얼 골드만(Daniel Goldman)은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Q) (1995)」이란 저서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동기화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며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EQ의 기본 요소를 정의하고 인간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지교육 못지않게 감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 활동중에서 감성은 전인적 인간을 양육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왜냐하면 풍부한 감성을 통해 자아인식, 의사결정, 효과

적인 의사소통, 동기부여,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성지능은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 개선 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감성지능 기본 요소들은 유아동기에 거의 완성되며 이러한 능력들은 모든 학습의 필수적인 바탕이 되므로 조기의 감성능력 개발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 양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21세기 사회에 대비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감성을 높이고 자기조절능력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인지적 능력만큼 감성 능력이 중요하며, 특히 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감성 지능 무시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치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2-3. 유아동 감성교육의 필요성

지난 20세기가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강조했다면 21세기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어린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정신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우리의 교육도 감성과 인성에 바탕을 두고 전인교육으로 뿌리 내려져야 한다.

21세기를 전후하여 선진 각국들도 교육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 개혁의 방향들이 모색되었다. 각 나라의 교육개혁은 ‘아동의 잠재력=국가경쟁력’이란 모토아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강조를 두고 있다. 특히 아동들의 감성 예술교육은 훗날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교육 현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전인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들어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발달지연 아동들이 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문제를 갖는 아동들의 경우 학업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 자녀·형제 관계에서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커서는 우울증 혹은 일련의 불량행동 등의 문제도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사회전반에 걸친 ‘인간성 회복’ 운동은 진정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점에서 미술교육의 역할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경쟁사회로 인

4) www. hankooki. com (서울경제) 2007년 11월 1일자 윤영달

해 기능과 지식의 습득에만 치우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반성하며,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여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에 힘써야 한다.

특히, 유아기는 평생의 감성적 성향의 틀을 형성하는 중대한 시기로 유아기부터 반복되는 감성적 행위의 습관들이 감성회로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어떠한 감성적 습관을 획득했는가가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으므로 감성교육은 조기에 시작되어야 하고, 발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불안정한 유아와 안정된 유아 간에는 발달과 행동 특징에 차이가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열심히 해결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화를 내거나 성인에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특히 유아동 시기는 창의성, 정서지능, 기본생활 습관 등은 인성의 기초가 이루어지므로 감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은 더욱 교육적 가치와 유용성이 크다고 보겠다. 또한 감성지능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같이 보내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감성지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 다음으로 교사는 사회적 관계로서 아동의 감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사회는 훌륭한 교사 배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성장하고 있는 우리 유아·아동들의 감성을 얼마만큼 잘 발달시키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 장래와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3. 미술교육과 유아·아동기 감성발달과의 관계

3-1. 유아·아동기의 미술교육과 그 치료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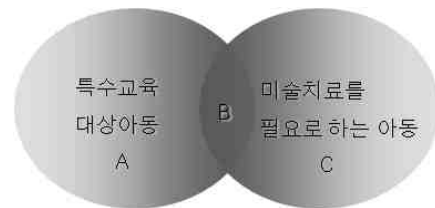
미술교육을 조기에 실시함은 아동의 전인교육을 조기에 실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겠다. 전인적 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성인으로 교육받은 모든 교육자 혹은 학부모들의 바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술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을 시도하는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유아에게 있어 유사점을 갖는다. 5)

헨리(Henley)는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유사점은 미술을 통해 내면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데서 찾을 수 있는 반면, 차이점은 미술치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사의 해석과 일대일 환경에서의 심리역동적 분석방법의 사용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미술교육은 미

술경험을 통해 자기인식, 자신감, 자존감의 향상 등이 중심이며, 미술을 진단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아동은 자신의 내적 상처에 대해 스스로 표현하기 힘드므로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지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억눌려 있던 공격성이나 갈등을 미술활동으로 분출시켜 문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장애로 판정 받은 아동들에게 장애의 진행과 퇴행을 막기 위한 약물치료나 정신과 치료에서 지치고 허약해질 수 있는 자아를 보살피는 치료적 차원에서의 미술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6)



[그림 2]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대상자에 관한 그림⁸⁾

- a) 특수교육대상자이면서 미술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
- b) 특수교육아동이면서 미술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
- c) 특수교육 대상아동이 아니면서 미술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 (학습스트레스, 핵가족, 형제, 자매의 부재, 왕따, 은따, 성폭행)

[그림 2]에서 처럼 가정 내에서 일반적으로 A, B 경우가 미술치료의 대상자로 간주하고 C영역의 아동들은 미술치료의 대상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낮은 실정이다.

미술은 표현의 결과보다 표현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그림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과정에서 억눌렸던 정서의 벽을 제거 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작업을 통하여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 9)

발달지연 아동을 둔 가정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아동의 상태에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술의 치유적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교육과 감성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면서 감성 지능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5) 이부연. 『21세기 미술교육의 방향-유아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조형교육학회논문지, 제 16집, 2000), p.250

6) 박은혜외.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학지사, 2004), p.18 개인용

7) 정명주의. 『아동미술치료, 이렇게 하세요』 (서울:형설, 2002)

8) 박은혜외.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학지사, 2004), p.18

9)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4), p.307

3-2. 미술교육과 감성

미술교육과 감성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감성지능을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살펴보겠다.

첫째,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미술은 어린이가 자신을 표현하는 매체이므로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통해 유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

둘째,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조형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화나거나 들떠있던 자기감정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 심리적 욕구를 만족 시키켜, 표현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셋째,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 동기 부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른 활동에 비해 미술은 아동 중심의 교과이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창작해 내는 기쁨을 통해 아동은 자기 동기 부여 능력과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표2]

넷째, 미술활동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읽고 다루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미술활동 영역 중 특히 감상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향상될 수 있다. 특히 협동 작업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동기 부여를 위한 교사 지도사항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감각을 활용해야 한다.	
상상력을 자극해야한다. 연상 작용이나 이미지 떠올리기, 자유롭게 상상하기 등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한다. 움직임 직접 경험해 보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물건을 이용하여 표현의욕을 고취시킨다.	
다르게 보게 한다. 축소해 보기, 확대해 보기, 셀로판지를 통과해서 보기 이미지를 재구성해본다.	
경험이나 느낌, 상상 등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야기, 동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재료의 탐색을 통해서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표2] 미술활동 시 동기부여의 효과적인 방법



[그림 3] 목욕시간을 통한 삼원색, 혼합색 수업 -면도크림(애프터 웨이브)과 물감을 이용한 것으로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성 미술수업

4. 점토를 활용한 감성미술교육

4-1. 점토의 의미

도자재료는 가소성을 특징으로 하며 미술교육의 입체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매체이다. 우리는 대부분 소지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지를 도재상을 통해 구입하여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데 점토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점토는 또 다른 말로 찰흙이라고 불리며 흙(土)이라는 개념에 물렁물렁하고 끈기 있는 가소성¹⁰⁾이 있는 정제된 재료를 말한다.

즉, 적당한 수분에 의해, 점성, 즉 점력을 지니고 건조시킨 후 유약을 발라 불에 구우면 내구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점토는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불순물과 기본성분의 다양성에 의하여 많은 점토 유형의 특성이 결정된다. ¹¹⁾

대부분의 도예 관련 분야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를 '점토'라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유아미술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형재료로써 끈끈한 점력이 있는 모든 흙을 말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점토치료, 흙치료, 찰흙놀이, 점토놀이 등의 용어로 놀이치료나 특수교육, 아동미술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점토매체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학술적으로 용어의 정립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방법의 효율성이 높이 평가되어 미술교육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간단히 미술수업에 사용되는 점토, 대체점토를 분류해 보았다.

	무소성 (대체점토)	1차소성, 2차소성
재료	지점토, 컬러점토, 피노키오점토, 아이클레이	청자토, 백자토, 조합토 등
특징	빠른 성형이 가능하나 가격이 비싼 편임, 건조 시 갈라짐이 적다 아이크레이, 컬러점토의 경우 다양한 색상의 점토가 있음	어떤 소지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유약의 외관상 특징이 달라짐, 유약의 다양함과 요변으로 인한 물질의 변화 등을 볼 수 있음 (물레성형 가능)
관련 이미지		

[표 3] 소성에 따른 미술 수업을 위한 점토의 분류

10) 정동훈 『현대도자예술』 (서울: 디자인 하우스, 1994), p.240
11) 클렌 C. 벨슨 『도자예술』. 임무근(역). (서울: 미진사, 1980), p.17

4.2. 점토미술교육이 감성계발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은 손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 점토를 가지고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두뇌발달에 큰 영향을 주어 미술 치료의 한 학문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도예작업치료(Ceramic Art Therapy)는 도예창작과정을 활용, 작업과정이 증시된 미술치료의 한 분야이다. 평면적이면서 입체적인 미술치료를 추구하며 도예용 점토의 특성을 활용한 미술치료로서 장애아들은 물론 성인과 노인 미술치료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점토의 부드러운 감촉과 형태감에 따른 표현을 접하면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어 정신치료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미술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있어서 손은 다양한 자극과 만나며 대상들을 탐색할 수 있는 훌륭한 매체이다.

미국의 도예가 Rotter(1963)가 말하기를 “점토가 유아들에게 거의 마술과 같은 매력을 주며 점토 놀이는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기능적 용도가 아니라 놀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며 강조하였다. 놀이는 타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여 기쁨이나, 안정감 등의 정서를 얻는 행위로, 그만큼 점토는 만지는 대로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유아동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점토미술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협응력과 집중력

유아동들은 흙을 만지고 주무르고 뒤틀고 누르는 등 다양한 손과의 결합을 시도하면서 입체화시키기도 다시 원상태로 해 놓기도 한다. 이러한 반복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유아동은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하게 된다. ‘협응’이란 어떤 자극에 대해 몸의 두 개 이상의 부위를 동시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눈과 손의 협응력은 촉각을 통하여 향상시키는 활동인 것이다. 12)

이러한 협응력은 신체 성장을 촉진시켜 집중력,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특히 다른 매체에 비해 아동의 수업 참여도, 집중시간이 길어짐을 볼 때, 이는 유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2) 진혜정 『초등 미술교육에서의 꾸미기와 만들기』(석사학위논문, 1997), p.17

(2) 안정감과 유대감

유아동들은 점토 조형과정동안 생각하고, 웃고, 소리치고, 꾸밈하고, 애쓰는 등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양하게 나타낸다. 이것은 유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욕구충족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심리적 안정감은 유아동이 점토를 접하는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점토를 통해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흥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 언어표현은 작품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부분이다.13)

예를 들어 유아동이 점토로 동물을 만든다면 동물 종류에 따른 울음소리나 움직이는 소리등이 점차 다양한 음색과 톤, 음성어, 의태어등으로 추가되며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또래 집단이 함께 모여 점토 조형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발음과 목소리 조절 등 언어능력이 증진하게 된다. 또한 유아동들은 상대방의 의도나 기분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심리적인 유대감을 갖는다.

(3) 창의력과 사고력

창의성이란 ‘정보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연합을 통하여 기존의 것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14)

창의성은 기존의 생각이나 관념을 수정, 변화시키으로써 기존의 것과는 새로운 산물, 유용한 결과를 형성해 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점토 조형활동을 통해 더욱 계발 될 수 있다.

유아동들은 점토를 이용하여 공룡을 만들고 집을 만들기도 하며, 우주를 표현하기도 한다. 우주공간에서는 외계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상상을 통한 조형활동을 통해 창의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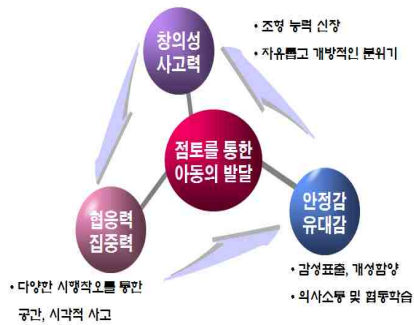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아동 개개인의 개성 존중과 자율적인 분위기, 다양한 경험 위주의 학습방법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미술수업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매체 중 하나가 점토이다. 하지만 최근 눈길을 끄는 가베, 카프라등의 수학, 과학교구등으로 미술 교육이 조금은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뇌, 대근육과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고정된 교재로 수업이 이루어져 아이들에게 다소 경직된 결과물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소성을 지닌 점

13) 김정현 『아동 점토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997), p.17

14) 송연자 『유아의 통합적 창의성 증진프로그램 효과』(박사학위논문, 2004), p.10

토매체 수업을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점토활동을 통한 유아동들의 성장

4.3. 감성계발을 위한 지도 원리

미술표현은 솔직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표현의 도구로, 실제 실기표현지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표현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술수업을 통해 감성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술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가 취하는 태도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감성을 자극하여 창의적인 미술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도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표현에 있어 긴장 해소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동기유발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점토를 원하는 만큼 때어 마음껏 누르고 주물러 반죽해보고 두들기며, 점토의 느낌과 성질(가소성)을 스스로 충분히 알아가게 하고, 표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취시킨다

둘째, 동기를 부여하거나 학습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작품 속으로 자기 감정을 이입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처음 점토를 접하는 경우 점토를 원하는 만큼 때어 마음껏 누르고 주물러 반죽해보고 두들기며, 점토의 느낌과 성질(가소성)을 스스로 충분히 알아가게 하고, 표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취시킨다.

셋째, 학습자의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활동 과정을 중요시한다. 심지어 어리석고 이상한 아이디어조차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간과할 경우 호기심이 없어져 주의력이 떨어져 결국 학습 치료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허용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되 일단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책임을 지도록 강조한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입체로 만들 경우 네다리에 비해 몸통이 너무 크면 무게중심이 안 맞아 입체물이 지탱이 안 될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유아동 스스로 무게 중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넷째, 표현을 하고 나서 어떤 감정으로 그렸으며, 왜 그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 학생들이 자신의 작업에 애착을 갖고 표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자신의 감정을 미술로 표현하면서 억눌린 정서의 해소와 더불어 안정된 정서를 갖게끔 도와준다.

다섯째, 자기 느낌과 감정을 미술로 표현한 수 있도록 하고, 회를 거듭 할수록 자존감과 함께 그것을 말이나 글로 다시 객관화시키는 활동을 유도한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표현작품을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게 한다. 실수가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여러 가지 방법과 가능성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 느낌과 친구의 표현의도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가진다.

일곱째,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동 작업을 경험해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로 인해 타인을 이해하고 협동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교사는 아동들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표현에 임하도록 격려하고 꾸중 보다는 칭찬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신감을 갖고 표현하게 한다.

미술치료나 미술교육에서는 작품을 우열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학교교육에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성교육을 위한 교육 현장에서는 작업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유아동기 손놀림이나 점토에 대한 익숙함이 아직 서툴기 때문에 하나의 놀이와 같이 흠을 느끼면서 창의력 향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교사는 감성교육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지도할 때 유아동들은 긍정적인 정서표현방법을 은연중 배우게 되고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앞서 말한 일곱 가지를 정리하자면 유아동의 개인별 특성과 발달 상황을 이해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

용(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 전체적인 발달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4. 교사-학습 예시안

감성계발 프로그램의 한 예로, 연구자가 5세, 7세 각 2명씩 총 4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한 점토미술교육 프로그램 다음과 같다.

주제	몸 속 여행	우리 동네 이야기
수업 개요	큰 종이에 누워있는 친구의 몸을 그리고 각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신체 기관(심장, 위, 대장, 소장..)을 점토로 입체 표현 해보고자 한다.	큰 종이에 동네 전경을 간단히 지도로 표현 (건물, 놀이터, 병원, 유치원, 도로..)하고 그 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학습 목표	소화의 과정에 대해 즐겁게 자신의 신체 기관을 표현함으로써 1. 구체적인 몸속 신체 기관이미지와 소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갖도록 한다.	점토로 우리 동네를 표현함으로써 1. 그 이미지를 구체화해 보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도입	* 동기유발 -자료를 통해 우리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1. 대변과 방귀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소화에 대한 호기심을 먼저 자극한다. 우리몸에 대해 무엇이 연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2. 우리 몸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여 주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본다. 3. 점토를 원하는 만큼 떼어 마음껏 누르고 주물러 반죽해보고 두들기며, 점토의 느낌과 성질(가소성)을 스스로 충분히 알아가게 하고, 표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취시킨다	* 동기유발 -자료를 통해 우리동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1. 유치원을 등하하는 모습으로 상상하게 하여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먼저 자극한다. 우리 동네에 대해 무엇이 연상 되는지 이야기 해본다. 2. 우리 동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여 주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본다. 3. 점토를 원하는 만큼 떼어 마음껏 누르고 주물러 반죽해보고 두들기며, 점토의 느낌과 성질(가소성)을 스스로 충분히 알아가게 하고, 표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취시킨다
전개	1. 점토의 속성을 충분히 느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구, 흙가래, 링, 판 등) 2.위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토를 다루면서 만들고 싶은 신체기관, 우리의 생활모습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본다.(가능한 각 부분을 만들고 글루건으로 붙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도와준다)	

정리	1.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왜 그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즐거웠던 점,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해 편안히 서로 이야기 한다. 자유로운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2. 자신과 친구들의 작품 감상한다. 3. 작품 표현에 그치지 않고 놀이의 형식으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낸다. 4. 점토 작업 마무리 후 결과물이 나왔다면 사지를 찍어주는 등 애착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 5. 스스로 정리 하는 습관을 기른다. 6. 헤어질 때는 다음을 기약하는 적극적인 포옹방법을 취한다.
평가	점토작업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도입부분,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조형적으로 잘 만들어진 결과물보다 얼마만큼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는지, 얼마만큼 즐겁고 이완된 상태를 느꼈는가 또한 중요한 평가 관점이 된다.
지도 유의 사항	유아들은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다시 집중을 요하는 것이 힘들므로 친구들과 관계 혹은 점토 과정 내에서 가능한 즐겁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다.
수업 이미지	

[표 5] 효과적인 감성계발을 위한 점토미술 프로그램

위의 프로그램은 협동 작업을 통해 대상 아동의 감성을 키우고자 함이 크다.

점토매체를 통한 이 교육방법은 그 어떤 학습방법보다 아동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다양한 사고력을 함양하며, 창의적이 문제 능력을 갖도록 한다. 대인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협동작업에서는 어떠한 주제를 놓고 팀을 이루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계획하고 토의, 제작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극대화되어 효과적인 협동제작이 이루어지면 대인관계능력이나 정서의 표현능력,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의 향상, 감성을 발달시켜 전인적인 교육에 바람직한 효과를 준다.

단순히 앉아 그리고 만드는 식의 정적인 조형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장애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아동은 이렇게 인간 본래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단순한 신체 감각과 운동감각을 그대로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신체의 개념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놀이 하듯 신나고 즐거운 감정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넣어 줄 수 있다.¹⁵⁾

15) 박원희외,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적 미술교육』 (학지사, 2008), p.18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유아·아동 개인 사정을 고려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되길 기대해 본다.

이와 같이 선행 자료를 토대로 미술교육에 있어 감성계발을 위한 교사 학습 예시안을 구성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수업 계획방법들이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교육현장 속에서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대상 유아·아동 개인의 발달 상태에 맞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 구현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적 검증은 통해 더 수정되고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아동기 초기 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물론 근래에 들어 유아·아동기의 감성계발에 열의를 가진 학부모님과 교육기관이 있다. 하지만 실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공부에만 신경을 써 정작 아이의 감성계발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아·아동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미술치료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편견과 비용으로 인해 미술치료의 사각 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빨리 그 출력물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주입식 교육에만 급급한 것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유아·아동기 동안 공들여 했던 감성계발의 노력과 비용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만이 진정한 효과가 나는 것이다.

미술활동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언어적 표현에 미숙한 유아·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시각적인 상징적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유아의 점토 조형활동은 유아·아동 자신의 자신감을 기르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미술교육의 대상자에 따라 그 목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이며 바람직한 미술교육의 목적은 결국 유아·아동의 건전한 정신 건강을 통해 전인격적인 인격 성장 발달을 돕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이 미술을 통해서 인간 형성을 이루게 함이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점토라는 촉각적 매체를 통해 유아·아동 개인의 발달 상태에 맞게 다양하게 경험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점토매체를 통한 감성

교육을 함으로 미술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점토의 가소성을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느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소근육을 통한 뇌자극과 감성 계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에서도 정신건강 상 문제를 가진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에 이르러 청소년기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등학교 또한 생활 환경 변화와 학업의 부담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미취학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의 인지능력 올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훗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미래의 초석이 될 유아·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유아·아동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감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이를 위한 교육의 한 방법으로 미술교육이 확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미술교육 중 점토매체를 활용한 교사 학습 지도안을 제시해 감성교육을 통한 유아·아동의 정신건강의 함양에 대해 제안하였다.

다섯째, 감성계발을 위해서는 바른 지도원리로 가르치고 도와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배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결과물에 의한 평가를 위한 수업이 아닌, 대상 유아·아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활동과 감성계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감성미술교육은 유아·아동들이 시각적 표현활동을 통해 자아와 타인 능력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활동을 감성을 향상시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유아·아동들의 감성계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술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조기에 예방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정신건강은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점토매체를 통한 감성교육은 다른 어떤 영역의 교육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긍정적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감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점토매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향후 활발히 생기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정동훈(1994), 현대도자예술, 서울: 디자인 하우스
- 고숙자의(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 김정의(2002),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 김현경외(1998),감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음세대.
- 이규선의(1999), 초등미술과 교육학, 교육과학사.
- 박은혜외(2004),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학지사
- 박원희외(2008),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적 미술교육. 학지사
- 정명주의(2002), 아동미술치료 이렇게 하세요, 서울: 형설
- 클렌 C. 벨슨(1980), 도자예술, 임무근(역).서울: 미진사.
- 대니얼 골드먼(1996), 감성지능 EQ, 황태호(역), 비전 코리아
- Henley, D. R.(1992). Exceptional children: Exceptional art. Worcester, MA: Davis Publications
- Mayer, J. & Salovey, P.(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and Personality.
- Rotter,e.(1963).Creative Clay design. New York: reinhold
- 김정현(1997), 아동 점토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연자(2004), 유아의 통합적 창의성 증진프로그램 효과,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연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송선(2000),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2000), 감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혜정(1997), 초등 미술교육에서의 꾸미기와 만들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강은정.(2007) 한국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 복지포럼, 제 128집.
- 이부연. (2000), 21세기 미술교육의 방향-유아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조형교육학회논문지, 제 16집.
- 양경희 외 (2006), 21세기 문화예술동향에 따른 장애아 미술프로그램 모색, 한국특수교육학회.41(11)
- <http://www.abn.co.kr> (아름방송) 2008년 10월 6일자 남혜경
- <http://ww.hankooki.com> (서울경제) 2007년 11월 1일자 윤영달